

명리 운명론과 자유의지의 상호작용에 관한 고찰

A Reflection on the Interaction between Myeongri and Free Will

목차 TOC

- 서론
- 명리 운명론
- 자유의지론
- 운명론과 자유의지의 상호작용
- 결론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운명론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서,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로 운명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폐단을 막기 위함이다. 운명론에 따르면 태어나는 순간 운명이 결정되므로, 동일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유사한 삶의 궤적이 나타나야 하지만, 다른 삶의 궤적이 존재한다. 이것은 결정론적 운명관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고, 자유의지를 비롯한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명리 운명론 안에서 자유의지의 존재와 범위를 탐구하여 운명론과 자유의지의 상호작용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을 제시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일사주 중에 삶이 다른 임상자료를 분석하여 가정환경·직업·배우자가 다른 내재적 상황과 선택의 영향을 통해서 운명론과 자유의지 간에 상호작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자유의지의 선택이 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고, 명리와 자유의지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influence of fatalism on life and prevent the detriment of excessive reliance on fatalism driven by anxieties about the future. According to fatalism, one's destiny is determined at the moment of birth, implying that individuals with identical birth charts should follow similar life trajectories; however, diverse life paths exist. This signifies limitations in deterministic views of fate and the presence of various variables, including free will. Therefore, this study explores the existence and scope of free will within Myeongri fatalism, offering an in-depth examination of the interaction between fatalism and free will. To conduct this research, clinical data of individuals with identical birth charts leading different lives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interplay between fatalism and free will through the influences of diverse internal circumstances and choices in crucial aspects such as family environment, occupation, and spouse selec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choices made through free will can foster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abilities and talents. Furthermore, the study concludes that Myeongri and free will are not contradictory concepts but can, in fact, mutually complement each other.

주제어 Keywords

명리 운명론, 결정론적 운명론, 자유의지, 동일사주, 추길피흉
Myeongli Destiny Theory, Deterministic Destiny Theory, Free Will, Same Birth Data, Seeking Good Fortune and Avoiding Misfortune

문화와융합
Culture & Convergence

p-ISSN 2950-9742

e-ISSN 2950-9750

2024-01-30

Vol.46 No.01 pp.1533-1546

DOI [https://doi.org/10.33645](https://doi.org/10.33645/cnc.2024.01.46.01.1533)

/cnc.2024.01.46.01.1533

윤상흠 Yoon Sangheum

원광대학교 박사

Wonkwang University

haidonga@hanmail.net

접수완료 2023-11-13

심사완료 2024-01-10

게재결정 2024-01-17

1. 서론

사회가 불안정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운명론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운명론과 자유의지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두 개념은 인류의 탐구 대상이 되어온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한다.

운명론은 우리의 인생이 이미 절대적인 법칙에 따라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의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과 선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두 관점은 각자의 세계관, 종교, 문화 등 다양한 차이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복잡한 주제이며,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선택에 대한 이해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명리는 우주적인 원리와 개인의 운명 간에 깊은 연결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로부터 우주의 정확한 순환과 규칙에 따라간다고 인식하였다. 17세기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역시 자연의 모든 사건은 원인과 결과 체인에 의해 결정되며, 자연법칙에 따라 엄밀하게 예측 가능하다는 결정론적 세계관을 지지하였다.

그에게 영향을 받은 현대물리학은 어떤 계의 ‘거의 정확한’ 초기조건과 자연법칙을 안다면 그 계의 ‘거의 정확한’ 운동 형태를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다(제임스 글릭, 2017:40). 이 논리를 명리에 적용하면 사람이 태어난 날의 年月日時는 초기조건에 해당하고, 干支의 음양오행은 자연법칙에 해당하므로 인간의 운명도 예측 가능하다고 믿는 것과 유사하다.

명리는 자연에 내재된 질서를 기반으로 하므로, 인간의 운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 干支와 陰陽五行은 명리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간지는 자연의 시간을 부호화한 것이고, 음양오행은 자연의 질서에 대응한다. 타고난 命을 파악하려면, 먼저 출생 시간을 간지로 변환하고, 태어난 날의 日干을 기준으로 음양오행의 생극관계에 따라 육친을 배치한 후, 명리 이론에 따라 타고난 富貴貧賤과 운의 吉凶을 파악한다.

이처럼 명리에서 인간의 운명을 해석하는 과정은

자연의 운행과 유사한 맥락을 따르므로 명리는 결정론적 운명관을 나타낸다. 따라서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삶의 흐름이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동일사주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는 유사한 운명의 흐름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동일사주의 사람들 중에는 서로 다른 운명을 살아가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는 운명이 반드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타고난 환경과 선택에 따라 운명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임상 결과는 결정론적 운명론을 지지하는 명리 이론에 오류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명리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론적 운명관과 자유의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주제는 종교, 철학, 문학, 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져 왔지만, 운명을 다루는 명리에서 자유의지의 연구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실제로 선행연구도 부족한 편이다.

먼저 김성덕의 「명리에서 결정론과 자유의지론의 상보성을 통한 양립가능론」을 살펴보면, 그는 사주팔자에서 용신(用神)을 찾아 중화(中和)를 통해 운명을 개척하려는 자유의지를 양립가능론의 근거로 삼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정론과 자유의지론을 모두 수용하는 ‘상보성 운명론’을 주장하였다(김성덕, 2019). 그러나 용신에 따르는 삶이 자유의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연구와 임상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김철완은 「命理學에 나타난 修養論의 儒家的 探究」에서 명리학과 유학을 철학적으로 접목시키며, 명리학의 운명과 유학의 천명을 융합하는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수양론의 시각에서 명리학과 유학을 결합시켰고, 명리학의 발전을 위해선 개인이 추구하는 운명을 넘어서 도덕적 자각과 내면의 수양을 통해 도덕적 실천을 이루어내는 ‘명리학의 윤리도덕화(倫理道德化)’를 주장하였다(김철완, 2013).

반면에 신창석은 「인간의 운명, 숙명인가 자유인가?」에서 의지의 선택 대상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이 제공하는 개념적인 것임을 강조하며, 인간의 의지가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

을 취하였다. 따라서 그는 인간의 운명은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신창석, 1998).

이와 같이 이전 연구들은 운명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주로 이성과 자유의지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 운명이 미치는 영향과 이성 및 자유의지가 운명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명리는 결정론적 세계관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일사주에서 다양한 삶이 존재하는 것은 운명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자유의지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한다.

동일사주에서 다양한 삶이 존재하는 주요 이유는 자유의지, 유전적 특성, 타고난 환경요인, 사회적 요인 등의 영향을 꼽을 수 있다. 이 중에 자유의지를 제외한 변수들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거나 변화시키기 어려운 제약이 있으므로, 명리에서 목표로 하는 ‘趨吉避凶’을 실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명리 운명론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자유의지가 작용하는 범위와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삶이 다른 동일사주를 분석하였다.¹⁾ 이를 통해 명리 운명론과 자유의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자유의지가 타고난 운명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2. 명리 운명론

2.1. 명리 운명론의 기본 원리

중국 고대 운명관을 살펴보면,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내리고, 악한 자에게는 화를 내리는 福善禍淫을 견지하다 개인이 쌓은 덕과 무관하게 부귀하고 장수하는 현실을 보고 각자 타고난 운명이 존재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자도 타고난 命을 인정하였다.

죽고 사는 것은 命에 달려있고, 부와 귀는 하늘에 달렸다.²⁾

도가 행해지는 것도 命이요, 도가 폐지되는 것도 命이다. 그러니 공백료가 命을 어찌겠는가?³⁾

공자는 命을 통해 타고난 분수를 알고 군자의 도를 추구하면서도,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함을 인정하였다. 이에 비해 장자의 命은 천지자연을 포함하고 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命이다. 밤과 낮의 일정함은 天(자연)이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바가 있으니 모두 物의 실정이다.⁴⁾

장자가 인식한 命의 범주는 인간의 생사뿐만 아니라 자연의 현상과 사물까지 포함한 만물에까지 확장된 개념이다. 만물은 각자 타고난 본성이 있고, 이 본성은 자연의 이치에 따르므로 타고난 인간의 命도 일정하게 움직이는 자연의 이치에 따른다.

이러한 인식은 명리에서도 나타난다. 오래전부터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존했던 인간은 삶이 자연에 존재하는 질서를 따르고 있음을 간파하고, 자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 결과 商代 갑골문에는 干支를 이용한 순환주기의 사용이 있었으며, 이 주기는 천체 변화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모든 시간 단위, 천체공간의 분할 단위, 자연과 계절의 변화 주기 등이 연결되어야 할 대상이었다(최진목, 2001:41).

그래서 단순한 순환주기로 쓰이던 干支는 음양오행과 결합하면서 천체 규율을 파악하고, 자연의 변화에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동중서는 “천지의 기운은 합하면 하나가 되고 나누면 음양이 되며, 구별하면 사계절이 되고, 펼치면 오행이 된다.”⁵⁾고 인식

2) 『論語』「顔淵」, “生有命, 富貴在天.”

3) 『論語』「憲問」, “子曰: 道之將行也與, 命也; 道之將廢也與, 命也. 公伯寮其如命何.”

4) 『莊子』「大宗師」, “死生命也, 其有夜旦之常天也. 人之所以不得與, 皆物之情也.”

5) 『春秋繁露』「五行相生」, “天地之氣, 合而爲一, 分爲

1) 본 연구에서 인용한 동일사주는 연구 목적으로 활용 동의를 얻었으며, 일부는 명리 커뮤니티에서 협조받아 수집했음.

하였다. 따라서 대자연에 속하는 인간 역시 음양오행의 기운을 받고 있으므로 『淵海子平』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천명은 氣數에 관한 것이고 인명은 오행을 품수한 것인데 기수와 오행이 구별될 수 있겠으며 천명과 인명이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⁶⁾

사람은 천지에서 품수 받아 명(命)이 음양에 속해 있고 하늘 아래 땅 위에 살아가니 모든 것이 오행의 가운데 있다.⁷⁾

인간은 음양오행의 기운을 받아 태어났으므로 음양오행은 인간의 운명을 추론하는 근거가 되었다. 홍유선은 命理에 대해서 ‘命’은 ‘天의 명령’ 즉 자연의 필연적 질서가 부여한 명령이고, 理는 自然之理로 이치, 원리, 법칙에 해당하므로 명리란 자연이 부여한 필연적 질서·원리·규칙·법칙이라고 정의한다(홍유선, 2020:160). 따라서 명리를 구성하는 간지와 음양오행은 계절의 순환과 자연의 질서 및 규칙을 반영하므로 인간의 운명을 추론하는 원리가 될 수 있다.

『연해자평』에서는 “사람의 命에는 영고득실이 있는바 모두 오행이 생극하는 원리에 있다.”⁸⁾고 하였다. 그래서 명리는 출생 연월일시로부터 간지를 생성하고, 음양오행의 생극에 따라 육친을 배치하여 타고난 富貴貧賤과 운의 吉凶禍福을 추론한다.

명리는 태어난 시간에 따라 정해진 운명이 존재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해자평』 「心鏡歌」에는 “인생의 富와 貴는 모두 전에 정해졌으니 술사는 자세히 논해야 한다.”⁹⁾는 정명론적 운명관이 나타나고, 홍유선 역시 『연해자평』에서 나타난 운명관은 유가의 천명사상과 왕충의 자연철학의 영향을 받

아 정명론적 운명관을 견지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홍유선, 2020:165). 이처럼 명리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예정된 미래가 존재한다는 결정론적 운명관을 갖고 있다.

2.2. 결정론적 운명론

인간이 타고난 환경은 유전적인 요소와 외부 환경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유전적인 요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 외부 환경 요소는 태어난 지역, 가정환경, 문화,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유전자는 인간의 생리학적 특성을 결정하고, 성격, 지능, 건강상태 등의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미치므로 운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쌍둥이 및 가족 연구 미네소타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리더십, 전통성, 권위에 대한 복종, 행복감과 삶에 대한 열정, 소외감, 스트레스 취약성이나 저항감, 두려움이나 위험 추구, 미적 경험에 몰두하는 능력 등을 비롯한 우리의 많은 특성들 가운데 50퍼센트 이상이 유전이라고 한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종교, 배우자 선택, 정치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조차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시사했다(줄리언 바지니, 2017:92).

타고난 사주도 유전자처럼, 개인의 삶에서 선택과 기회에 크게 영향을 미쳐서 인생에서 만나는 기회와 제약, 그리고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하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를 좁히거나 넓힌다.

이러한 개념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주로 태어난 사람들이 유사한 환경과 운을 경험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동일사주의 임상자료를 통해 그들이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비슷한 선택을 하면서 유사한 운명을 살아가는지 조사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운명이 인간의 삶에 미치고 있는 실제적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陰陽, 判爲四時, 列爲五行”.

6) 『淵海子平』 「碧淵賦」, “天命關乎氣數 人命稟乎五行 氣數五行何以殊 天命人命何以異.”

7) 『淵海子平』 「繼善篇」, “人稟天地 命屬陰陽 生居覆載之內 盡在五行之中.”

8) 『淵海子平』 「碧淵賦」, “人命榮枯得失 盡在五行生剋之中.”

9) 徐升 編著, 『淵海子平評註』, 「心鏡歌」, “人生富貴皆前定, 術士詳論”.

辛 辛 丙 庚 男命 卯 巳 戌 戌 壬 辛 庚 己 戊 丁 辰 卯 寅 丑 子 亥
공통점
두 사람은 혈액형·입대일·임용일·결혼일·승진일이 같았다. 둘 다 1991년 1월 4일 같은 훈련소에 입소했고, 1996년 7월 27일 경찰에 임용 되었으며 5살 연하 아내를 만나 1999년 4월 5일 결혼식을 올린 뒤에는 같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갔고, 한때 같은 아파트에 살기도 했다. 2009년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고, 식성과 기호도 비슷하다.(한국일보, 2016.10.19).

이 동일사주의 두 사람은 우연의 일치로 돌리기에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 이 사주는 비겁이 많아 일간이 강하므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장생활이 유리하고, 숙살기운이 강한 특징이 있어서 생명을 다루는 경찰 업무가 잘 맞는다. 임용된 丙子년은 官운에 해당하므로 취업에 유리하고, 결혼한 己卯년은 재성운에 도화까지 함께 도래하여 이성운이 증폭되므로 결혼에 유리하다.

이 동일사주는 우연히 삶이 겹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선택이 운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의 의지가 바로 사주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동일사주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들 삶에는 인간의 의지로 벗어나기 어려운 운명적인 경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戊 辛 甲 庚 男命 戌 酉 申 申
공통점
부친이 자수성가했다가 사업 실패, 부모 이혼, 힘들게 성장, 직업은 의료인(의사, 한의사), 처가의 경제적 도움을 받음.

이 동일사주 두 사람은 부모의 동정과 직업, 배우자 인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삶이 비슷하다. 특히 학창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선망하는 의료인이 되었고, 유복한 집안의 배우자와 결혼한 것까지 삶의 공통점이 있다. 이를 통해 사주가 개인의 타고난 가정환경, 직업, 배우자 인연 등 어느 정도 정해진 운명을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정해진 운명 외에도 운의 길흉, 성패와 같은 운의 흐름도 비슷하게 타고나는지를 밝

히기 위해서 동일사주를 통해서 살펴보자.

丁 甲 甲 丁 女命 卯 子 辰 酉
공통점
중산층 집안에서 출생, 26살 壬戌년에 癸巳생과 결혼, 28살 甲子년에 아들 출산, 두 사람 모두 남편이 사업에 실패, 31살 丁卯년에 옷가게 시작, 44살 庚辰년에 이혼(윤상흠 2023:45).

이 동일 사주는 서로 비슷한 중산층 가정환경에서 자랐으며, 같은 해에 4살 연상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같은 해에 아들을 출산하였다. 또한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같은 해에 옷 가게를 개업하였고, 또 같은 해에 남편과 이별하였다. 이들 정보에서 알 수 있듯이 타고난 환경과 배우자 인연도 비슷하지만, 운의 흐름과 길흉 역시 비슷하였다.

그래서 이 역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동일사주의 경우 A는 투자한 부동산 재테크가 성공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반면에, B는 의류업을 하다가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따로 재테크를 못했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차이가 났다. 이로써 사주는 결정론적 운명관을 지지하지만,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 변수를 만들어 다른 운명의 궤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즉 운명론과 자유의지는 상호작용하며 개인의 삶을 조금 더 복잡하게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자유의지론

3.1. 자유의지의 개념과 역할

개인의 자유의지로는 피하기 어려운 운명이 존재한다는 결정론적 운명론과 달리 자유의지론은 인간의 의식과 판단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며, 외부적인 제약이나 내부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결정론적 운명론을 부정한다. 대표적으로 자유의지론자라고 부르는 비결정론자들은 ‘자아’(self)라는 특별한 존재를 상정하는 사

람들로 ‘자아’란 사건의 인과적 연쇄에 밖으로부터 개입할 때는 신체를 통하여 개입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는 인과적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서, 일종의 형이상적인 존재라고 주장한다(김형기, 1986:115).

가령 인간의 의식과 의지를 가지는 개인적인 정체성을 ‘자아’라고 하면, 이 자아는 인간의 신체와 뇌를 통해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자아’ 자체는 인과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믿는다. 따라서 자아는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의지는 인지적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신념 체계는 자유의지와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둘은 개인의 가치, 도덕적인 판단, 행동 방식 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자유의지와 신념체계의 상호작용은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인 영향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고유한 경험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고 변화할 수 있다.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영국 왕립학회에서는 신경과학의 발달, 그리고 그 발달이 사회와 공공정책에 대해 갖는 함축적 의미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궁극적으로 ‘각각의 사람이 신경 수준, 인지 수준, 사회 수준에서 작동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과 수준들 사이에서 다중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한나 크리스로우, 2003:32).

인간은 주변 환경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사회화 과정에서 결정에 따른 책임을 배우게 된다. 이로 인해 성인으로서 내리는 선택들은 기존의 경험과 세상에 대한 인간의 지각 사이의 무한한 상호작용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뤄지고, 뇌는 살면서 겪은 경험에 반응해서 발달한다(한나 크리스로우, 2003:19).

개인의 사고체계는 문화, 교육, 경험, 종교 등과 같은 다양한 영향을 받아 형성하는데, 이때 형성한 신념들은 자유의지를 통해 자신을 규제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이를 통해 유혹과

충동에 대처하고 목표에 집중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새로운 도전에 맞서며 학습하면,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개인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으므로 자유의지는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명리에서 추구하는 ‘趨吉避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유의지의 영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과 변수를 만들 수 있어야만 좋은 운을 추구하고 나쁜 운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는 명리처럼 운명 결정론을 주장하는 철학과도 함께 공존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

3.2. 재물과 명예에 미치는 자유의지의 한계

앞서 자유의지가 삶을 개선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대 생물학과 뇌과학 등 다양한 연구분야의 결과를 고려할 때, 전통적인 자유의지의 개념에서 벗어나 자유의지가 제약받는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유전자는 동물의 생물학적 특성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인간 행동 또한 그 예외는 아니다. 유전자들은 인간의 뇌의 구조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행동 패턴 형성에 영향을 끼치므로 개인의 성격, 감정적인 특성, 뇌의 활동 등이 조절된다. 그래서 유전적 특성들은 어느 정도 자유의지에 영향을 주고,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뇌과학 연구에서는 자유의지가 어떻게 형성되며,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뇌 스캔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와 관련된 뇌 영역들을 밝히는 연구에 따르면 뇌의 신경 회로와 화학 물질들은 우리의 의식과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인간) 정신은 자율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복잡한 신경 프로세스들을 토대로 그때그때 총체적인 상태(통증, 편안함, 기쁨, 괴로움, 화, 분노 등)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특수한 방식으로 처리한다(프란츠 M 부케티츠, 2009:136). 이러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자유의지와 관련된 논의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의 목적인 운명론과 자유의지의 관계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에서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레비틴의 연구 결과를 통해 어느 분야에서든 세계 수준의 전문가, 마스터가 되려면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말콤 글래드웰, 2009:56). 그는 선천적 재능보다 후천적인 연습과 노력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자유의지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지만, 이와 달리 잭 햄브릭 미시간주립대 교수 연구팀은 다른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노력과 선천적 재능의 관계를 조사한 88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이 분야 연구 중 가장 광범위한 것이다. 연구 결과 학술 분야에서 노력한 시간이 실력의 차이를 결정짓는 비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스포츠·체스 등의 분야는 실력의 차이에서 차지하는 노력 시간의 비중이 20~25%였다. 어떤 분야든 선천적 재능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대가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결론이다(중앙일보, 2014.07.14).

성공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노력이 필요하지만, 노력보다 선천적 재능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는 명리 주장과 일치한다. 명리는 재능뿐만 아니라 타고난 부귀빈천도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이유가 있다. 부와 명예처럼 가치 있는 것들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제한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치열한 경쟁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소수만이 부와 명예를 획득하는 데 성공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며,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사람이 의지만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힘든 현실이 존재한다.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상위 10%는 전 세계 자산의 75.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의 몫은 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한겨레, 2021.12.08). 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만연한 부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다른 사람들의 자유의지와

결정이 상호 교차하고, 다른 사람의 욕망과 요구를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이 따르므로, 개인의 자유의지는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 부와 명예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성공을 위한 과정에는 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운명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건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비현실적인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운명은 우리의 삶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뛰어난 기술과 노력을 기울여도 성공과 실패에는 운과 우연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존 크럼볼츠 교수는 성공한 기업가 1,000명을 대상으로 성공 원인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벌였다. 성공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자 가운데 ‘계획적으로 노력해 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한 사람은 25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75퍼센트는 ‘우연한 기회에 성공의 길로 들어섰다’고 응답한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전설적 투자가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피터 번스타인은 <포브스>가 선정한 대부호 1,302명을 대상으로 성공 요인을 분석했다. 대부호들의 공통점은 승부욕과 경쟁심, 그리고 행운과 타이밍으로 압축됐다(연준혁, 한상복, 2010:31).

개인이 미래에 직면하는 상황과 조건은 예측하기 어렵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개입하여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공은 우연과 기회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운이 좋을 때는 예기치 못한 기회가 찾아와 부와 명예를 보다 쉽게 얻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운이 나쁠 때는 예상치 못한 변수나 난관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굳건한 자유의지만으로 항상 성공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명리를 통해 좋은 운을 파악하고 최선의 선택을 찾아서 자유의지를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운명을 좌우하는 운의 영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다.

4. 운명론과 자유의지의 상호작용

4.1. 운명론의 한계

2장 2절에서는 유사한 삶의 궤적이 나타나는 동일 사주의 자료를 통해 타고난 사주는 어느 정도 운명을 결정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명리의 결정론적인 운명관이 유효하려면, 동일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부와 명예, 그리고 운명의 흐름에서 유사성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동일사주를 임상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자주 나타난다. 이는 사람의 운명이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개인의 자유의지, 환경요인, 유전적 특성, 사회적 요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동일사주라 할지라도 삶의 궤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초기조건에 민감하여 초기의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나비 효과’(제임스 글릭, 2013:48)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동일사주라 할지라도 다양한 변수들이 만드는 차이로 인해 삶의 궤적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삶에 결정되지 않은 영역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이는 운명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戊 戊 戊 戊 男命 午 午 午 午		
A	B	C
집안 어려움, 공고 졸업 후 전자제품 AS센터에서 근무.	무위도식하며 한 평생 꿈만 꾸고 살음.	대기업 근무하다 퇴직하고 무역 사업을 했음.

이 사주는 관우장군의 사주로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한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子平眞詮』에서는 이 사주를 특별한 사주로 판단하는데, 그 이유를 倒冲(도충)의 논리로 설명한다. 이 사주에는 財官이 없으나 도충격을 이루고 있어서 地支에 있는 많은 午가 沖으로 動하게 하여 子 재물을 끌어온다는 논리를 주장하면서¹⁰⁾ 좋은 사주로 평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인의 동일사주의 삶을 살펴 보면 다양하며, 고전의 주장과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A처럼 기술직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삶은 午 羊刃의 특성으로 설명이 된다. 양인은 칼의 속성이 있어서 군인·경찰처럼 무관의 직업과 인연이 있고, 날 카로운 공구의 속성도 가지고 있어서 기술직과도 인연이 될 수 있다. B의 삶은 사막에 존재하는 신기루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다. 태양이 작열하는 午月에 地支들이 모두 뜨거운 午火가 차지하고 있어서 戊土는 뜨거운 사막과 같은데, 그런 사막에는 바다처럼 보이는 신기루가 나타난다. 따라서 큰 재물처럼 보이는 신기루만 바라보면 무위도식의 삶이 될 수 있다.

C의 삶 역시 사막과 관련이 있다. 午 말은 사막에서 낙타와 같고, 午 낙타들이 줄줄이 늘어서는 것은 많은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사막의 카라반을 떠올리게 하는 象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C처럼 교역, 유통, 무역 등과 관련한 일을 수행하면, 큰 재물을 다루는 삶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이 세 명의 삶은 각각 다르지만, 이러한 차이 또한 그들의 사주 내에 있는 변수들이 발현된 결과이다. 따라서 사주를 활용하면, 어떤 선택에 자유의지를 집중하는 것이 최선인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壬 壬 壬 壬 男命 寅 寅 寅 寅	
A	B
경영학 전공, 일찍 결혼, 국내서 사업하다 호주로 이민가서 사업.	기혼, 처덕이 있고, 호주에서 재무부 공무원으로 재직.
C	D
인문학 전공, 독일로 유학, 교수 희망, 미혼.	수학 전공, 독일로 유학, 교수 희망, 미혼.

임상 결과에 따르면, 이 동일사주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從兒格으로 재물 火를 추구하는 삶을 선택한 반면에, 두 번째 그룹은 나무를 기르는데 필요한 수량을 보충 해주는 인성 金을 추구하는 학자의 삶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결과 A와 B 그룹은 木火를 추구하여 부를 중시하므로 경제·경영 분야에서 활약하고, 결혼도 좋은

官, 而對面以冲之, 要支中字多, 方冲得動, 譬如以弱主邀強賓, 主不衆則賓不從, 如戊午、戊午、戊午、戊午, 是冲子財也.”

10) 『子平眞詮』 「論雜格」, “有倒冲成格者, 以四柱無財

선택이 되며 남쪽 방향에 위치한 호주로 이민 가는 것 또한 유용한 선택이다.

반면에 교육을 선택한 C와 D 그룹은 식상 나무를 키워야 하는데, 수량이 부족하므로 金生水 해주는 인성을 추구하여 학자의 길을 걸었다. 그 결과, 金의 지역으로 분류되는 유럽으로 유학하는 것은 유용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그룹 간의 차이가 나타난 원인이 집안의 환경인지 타고난 성향인지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지금까지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관찰한 결과, 다양한 삶의 궤적이 나타났다. 이들의 다양한 삶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몇 가지 주요한 패턴이 나타난다. 먼저 비슷한 삶을 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로는 유형 별로 각각 다른 삶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주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개별적인 선택과 결정에 따라 다양한 미결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물리학과 카오스 이론에서도 나타난다. 고전 역학에서는 초기 상태를 정확하게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만, 양자 역학에서는 확률적인 성격을 띄어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결정된 부분과 결정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특성은 명리와 유사한 면이 있다.

또한 카오스 이론 중에는 로렌츠의 끌개 그림(제임스 글리크, 1993:45)¹¹⁾이 있다. 이 그림은 대기 환경 모델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초기조건에 민감하여 예측이 어렵지만 나비 모양의 일정한 패턴을 따르는 동적 시스템을 보여준다. 이는 무질서 속에 내재적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동일사주에는 여러 변수들이 영향을 미쳐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이 존재하지만, 사주의 큰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성은 유사하다.

이러한 이해는 운명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자유의지의 관계를 깊게 탐구하고, 우리의 삶을 효과적

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2. 동일사주의 변수와 자유의지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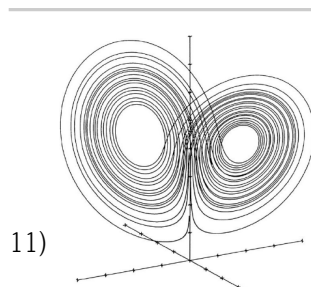
명리에서 주요 관심사는 타고난 富貴貧賤과 趨吉避凶을 위한 運의 변화를 예견하는 것이다. 추길피흉이 가능하려면,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지가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명리의 결정론적 운명론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작용한다. 만약 정해진 운명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면, 노력과 선택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며 목표로 하는 추길피흉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명리는 미래의 흐름을 예견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는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명리는 운명의 고정성과 개인의 선택 사이에서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와 명예를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 작용해야 한다.

따라서 명리에서 능동적인 자유의지는 중요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일사주를 가진 사람들 간에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을 비교하고 내재적 상황과 선택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동일사주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가정환경·직업·배우자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자유의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4.2.1. 가정환경의 차이

庚 癸 丙 庚 女命 申 丑 戌 午	
공통점	
성격, 타고난 체형, 키, 외모가 비슷함.	
A	B
중학시절부터 온라인 쇼핑몰 사업으로 돈을 벌었고, 집안에서 경제적 지원을 했음. 뒤늦게 사 이버대학에 다녔음. 의류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최근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 남자친구를 사귀어 드물었	부친의 정신적, 물질적 지원으로 풍족한 생활 했음. 부모님 교육열 덕분에 명문대에서 미술 전공, 현재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디자인 관련 업무를 맡아서 근무하고 있음. 남자친구를 사귀어 지속적으로 사귀었고, 성형에 관심이 많음.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사주로 태어났지만, 타고난 환경이 달라서 戊土의 활용이 달랐다. 戊土는 財庫로서 큰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잠재력과 명예를 나타내고, 午戌 火局은 美와 관련이 있어서 두 사람 모두 美에 대한 관심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A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돈을 벌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타고난 재능과 戊土를 사업에 활용하여 학업, 이성, 외모보다는 돈 버는 사업에 집중하였다. 반면에 B는 여유로운 가정에서 태어나 돈보다는 명예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타고난 재능과 戊土 정관을 명예, 직업, 이성으로 활용하였다. 이렇게 가정환경의 차이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동일사주는 財局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수준의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여기에 木의 기운을 보충하면 재물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A가 선택한 의류업은 木의 기운을 보충하므로 사주 내에서 최선의 선택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자유의지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戊 丙 壬 甲 男命 戊 戌 申 戌	
공통점	
깊은 신앙심, 과묵한 편, 비슷한 여성관, 청소년 시기에 힘들었음.	
A	B
공격적인 성향, 부모님 이혼, 부친은 개인택시 운행, 본인은 자동차 정비, 불교에 심취, 현재 대학에서 머리 공부 중.	순한 타입, 모친이 잘해줌, 부친은 조경업, 독실한 크리스찬, 중견 건설회사에서 근무 중.(윤상흠, 2023:54)

이 동일사주는 丙火 일간의 기운을 洩하는 土가 많아서 일간이 약하므로 木生火하는 甲 인성이 필요하다. A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자동차 일을 하는 부친과 함께 자랐으며 본인이 자동차 정비를 했다. 역마살에 해당하는 申은 자동차의 속성이 있으므로 가정환경으로 보면, 甲의 生보다는 壬申의 洩하는 기운에 영향을 더 받았다. 따라서 편관 壬水에 대항하려면, 戊 식사가 필요하므로 기술을 배웠고, B보다는 공격적인 면이 있으며 더 힘든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

이에 비해 B는 모성애가 강한 모친의 보살핌을 받

았으며, 부친은 조경업에 종사하고, 본인은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으므로, 甲의 기운이 활성화되었다. 그 결과 木生火를 더 받은 B가 교육도 더 많이 받았고, 삶도 순탄하게 살았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한 A는 壬申보다는 甲의 분야가 더 유리함을 알고 나서 자동차 정비일을 그만두고, 사이버대학에 입학하였다. 이는 불리한 壬申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甲의 기운을 더 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유의지로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한다.

4.2.2. 직업의 차이

戊 甲 戊 丙 辰 寅 戌 午	
남자	여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농사를 짓다가 32살 丁丑년부터 유통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생활이 안정되었고, 대형마트 관리자로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 부부사이 좋은.	교육학 전공, 30대 후반에 남편이 IT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사업이 부도나면서 본인이 가장이 되어 미용을 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부부갈등이 고조되어 이혼을 고민.

같은 태어난 시간에 태어난 두 남녀의 사주는 일간 甲木이 뿌리 내리는 땅에 따라 삶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된다. 甲木이 뿌리 내리는 戊戌 땅의 경우에는 寅午戌 火局이 되어서 나무가 타거나 枯木이 되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반면에 辰 水庫 작용으로 물기가 있는 戊辰 땅에 뿌리를 내리면 生木으로 성장할 수 있다. 남자가 종사한 유통·물류는 水의 직업에 속하므로(윤상흠, 2018:43)¹²⁾, 戊辰 땅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는 것과 같아서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생활이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었다.

여자의 경우 남편이 벌인 전자·컴퓨터 관련 사업과 본인이 종사한 미용은 火의 직업에 해당하므로 戊戌

12)

木	교육, 건축, 출판, 의류, 가구, 목재 등
火	방송, 예술, 심리(정신), 관광, 전기, 컴퓨터, 에너지, 화학 등
土	종교, 철학, 토목, 부동산(땅), 전통(토속), 중계 등
金	금융, 경제, 경영, 의학(생명공학), 법, 군인, 경찰, 철강, 기계 등
水	해외, 유통, 요식업, 수산업 등

땅에 뿌리 내리는 것과 같다. 그 결과 나무가 枯木으로 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부 갈등을 겪었다. 이와 같이 水와 火의 직업 중 선택에 따라 성패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직업 역시 동일사주의 다른 삶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오랜 직장생활로 인한 피로감으로 직장을 떠나 다른 분야 일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상담을 통해 현재의 직장이 최선의 선택임을 깨닫고 정년까지 일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의지를 실천하는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庚 癸 戊 辛 女命 申 巳 戌 亥	
A	B
종교, 철학적 성향 강함. 부친 사랑이 많았으나 모친과 사이가 안 좋음. 여자 동료들과 불화가 있는 편. 연애 경험이 있고, 이혼, 잘 꾸미는 편. 현재 명리 공부 후 명리 상담하고 있음.	종교, 철학에 관심 없음. 부모님 이혼 후 모친과 생활, 여자 동료들과 사이 좋음. 남자에 관심 없어서 연애 경험이 없음. 미혼. 잘 꾸미지 않음. 현재 학습지 교사.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사주지만 성향, 이성관, 직업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부친의 사랑을 받은 A는 巳火의 작용으로 일간 癸水가 열을 받아 상승하게 되는데, 그러면 산을 감싼 운무처럼 변한다. 이러한 결과 癸水는 남자·명예·직업에 해당하는 정관 戊土 산과 戊癸합으로 조화로운 결합을 형성한다. 그리고 戊土 아래 戊亥는 天門이 되어 道에 통하는 象이 (李錫暎, 1994:145) 있으므로 영성과 철학적 사색에 대한 깊은 성향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巳申合水의 작용도 나타나는데, 이때는 巳火의 힘이 사라지면서 상승하던 癸水가 하강하여 계곡물과 같은 상태로 전환된다. 이와 같이 癸水의 상승과 하강의 반복은 감정의 기복과 함께 戊土 정관과 습이 흔들려 결혼생활에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반면에 B는 부친과 인연은 짧고, 모친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있어서 庚申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巳申合水의 강한 작용으로 상승할 수 없는 癸水는 戊土 관과 습하지 못하여 이성과 인연을 찾기 어려워졌고, 종교·철학에도 관심이 없었다.

A 사주에서 戊癸合火의 火는 직업 또는 남편으로 인한 재물에 해당한다. 그래서 결혼 후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릴 수 있었으며, 종교·철학 분야의 직업이 경제적으로 유리함을 깨달았다. 이로 인해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명리 상담을 직업으로 삼아 자신의 적극적인 자유의지를 실천하고 있다.

4.2.3. 배우자의 차이

癸 壬 己 庚 女命 卯 辰 卯 戌	
공통점	
청소년기에 운동 시작, 강한 모성애, 명리에 많은 관심, 같은 날 결혼, 같은 시기 같은 질병 발생.	
A	B
온순한 성향, 운동하다 중단, 배우자는 약사, 아들은 제약분야 연구원 희망, 딸은 미대 진학, 본인은 명리 상담과 교육에 종사하며 경제 활동.	호전적인 성향, 운동을 계속하여 선수로 활동, 이혼, 전 배우자는 선박업에 종사, 딸과 아들 모두 골프 전공, 본인은 특별한 경제 활동 없이 지냄.
A 남편	B 전남편
甲 壬 戊 戌 男命 辰 戌 午 申	乙 戊 辛 庚 男命 卯 戌 巳 戌
약사, 가정적이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함.	선박업 종사, 가정에 대한 책임감 부족으로 이혼(윤상흠, 2023:56).

이 동일사주 두 사람은 봄에 木을 키우는 봄비와 같아서 모성애가 강하여 자식 교육에 열성적이고 가정을 지키려는 욕구가 강하면서도,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를 가졌다. 그 이유는 월에 상관 卯가 卯辰 木局으로 작용하여 정관 己土를 켜하여 제방이 무너지는지, 아니면 卯戌合으로 작용하여 己土 제방이 안전한지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A는 직업이 약사인 남편을 만났으며, 아들이 제약과 관련 전공을 하는 것은 卯가 卯戌合으로 작용을 의미하는데, 이는 卯·酉·戌 중 두 글자가 있으면 의약과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이석영외 3인, 1982:47). 이

처럼 卯 상관이 戌土와 卯戌합으로 작용하면, 己土 정관을 극하는 작용이 약해지므로 己土가 제방 역할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A는 성격이 온순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있으며, 철학에 해당하는 戌土를 직업으로 삼아서 명리 상담을 하고 있다. 가끔은 남편에게 불만이 있지만, 공부를 통해 현재 배우자가 최선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도 자유의지가 긍정적으로 발현된 예라 할 수 있다.

B는 운동에 재능이 뛰어났고, 자식들 둘 다 골프를 전공한 것은 卯가 卯辰 木局으로 작용하여 잔디밭의 속성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월의 卯 상관이 강해져 己土 정관을 켜하므로, 제방이 무너져 가정이 흩어지고 일간 壬水는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흐른다. 이로써 성격은 호전적이고 자유분방하게 되는데, 거기다 배우자 역시 가족에 책임감이 약해 부부 모두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떨어져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 이처럼 부부 인연은 삶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궁합을 통해 잘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려는 적극적인 자유의지가 필요하다.

壬 己 癸 己 男命 申 酉 酉 酉	
공통점	
경제적 능력이 있으나 소비성향이 강한 편, 술에 관심이 많음, 己巳대운 이혼.	
A	B
음악 전공, 건강상 술을 마실 수 없음에도 술을 모으는 취미가 있음.	과수원과 특용작물을 재배, 잦은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
壬 乙 辛 庚 女命 午 巳 巳 戌	壬 壬 乙 癸 女命 寅 戌 卯 丑
전처: 살림에 관심 없고 지나치게 과소비하며, 모성애가 부족하고 자식이 없었음.	전처: 자녀 2명, 모성애가 강하고, 가정적이며 부지런하고 알뜰함(운상함, 2023: 66).

이 동일사주는 金과 水의 기운이 뭉쳐 從兒從財에 해당하여 재물 복이 많아 보이지만, 재물이 壬水와 癸水로 혼잡하여 濁하다. 壬水와 癸水 중에 癸水是 고인 샘물과 같아서 안정적인 재물에 해당하고, 壬水是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불안정한 재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우자 인연 역시 이러한 속성이 있으므로 癸

水 성향의 처를 만나면 가정적인 여성과 인연이 되고, 壬水 성향의 처를 만나면 통제되지 않아서 자유분방하고, 소비성향이 큰 여성과 인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

A의 전처 사주는 무더운 여름에 태어난 일간 乙木이 식상 火가 많아서 인성 壬水에 의지하게 된다. 그러나 약한 인성으로 강한 식상을 억제할 수 없어서 충동적이고, 지나친 소비성향을 지녔다. 이러한 성향은 A사주에서 壬水 여성에 해당하므로 부부갈등이 컸다.

반면에 B의 전처 사주는 봄에 태어난 일간 壬水는 봄비와 같아서 식상 乙卯를 잘 키우려고 해서 모성애가 강했고,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였다. 이러한 성향은 B사주에서 癸水 여성에 해당하므로 현처를 만났다. 하지만 B가 가까이한 유흥업소 여성은 흘러다니는 壬水에 해당하므로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그로 인해 이혼하였다.

결국 두 사람 모두 壬水에 해당하는 여성과 인연을 맺은 결과로 가정불화를 겪으며 이혼하게 되었다. A는 명리 상담 후 壬水보다 癸水에 해당하는 여성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함을 인식하고, 현재 癸水の 성향을 지닌 여성과 재혼하면서 삶을 발전시키는 자유의지를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동일사주를 가진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이들은 유사한 삶도 있지만,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 다양한 삶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지의 행사가 사주에서 제시된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유의지가 운명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을 찾아 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명리에서 자유의지는 부와 명예를 쌓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려움에 대응하고 길을 바르게 찾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자유의지는 '趨吉避凶'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명리의 원리와 자유의지는 서로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 자유의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된다.

5. 결론

첨단 과학이 발달한 현재에도 인간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운명론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운명론과 자유의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운명론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운명이 결정되므로 동일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삶의 궤적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동일사주를 분석해 보면, 유사한 삶도 있지만 서로 다른 운명을 살아가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는 운명이 반드시 결정된 것이 아니고, 타고난 환경, 유전자, 사회적 요인, 자유의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삶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여러 변수 중에서 명리에서 목표로 하는 ‘趨吉避凶’을 실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명리에서 자유의지의 존재와 범위를 탐구하여 명리 운명론과 자유의지의 상호작용에 관한 심층적인 고찰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동일사주 중에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임상자료를 분석하여 운명론과 자유의지 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였다. 그리고 동일사주에서 가정환경·직업·배우자가 다른 내재적 상황과 선택의 영향을 통해서 자유의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명리를 통해 최선의 선택을 찾아 실천하려는 자유의지를 가질 때, 재물적인 면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고 부부간에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자유의지는 운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자유의지의 선택이 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명리의 원리와 자유의지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되므로 부와 명예를 쌓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려움에 대응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동일사주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미래 연구에서는 더 많은 임상자료를 통해 보다 다양한 변수를 연구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資料

『論語』

『莊子』

『淵海子平』

『淵海子平評註』

『子平眞詮』

『春秋繁露』

2. 論著

김성덕(2019). 명리에서 결정론과 자유의지론의 상보성을 통한 양립가능론, 동방문화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기(1986).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문제, 인문학총 11, 107-122.

金哲完(2013). 命理學에 나타난 修養論의 儒家的 探究, 대전대학교 대전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말콤 글래드웰 지음, 노정태 옮김(2009). 아웃라이어, 김영사.

신창석(1998). 인간의 운명, 숙명인가 자유인가?, 인문과학 연구 1, 85-94.

안관옥(2016. 10. 19.). 어찌 이런 일이...생일·입대·결혼날까지 '데칼코마니' 두 경찰, 한겨레, A21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area/766354.html>

연준혁, 한상복 지음(2010). 보이지 않는 차이, 위즈덤하우스.

윤상흠(2023). 동일사주의 다른 운명에 관한 고찰, 동방문화와 사상 14, 41-73.

윤상흠(2018). 사주의 함정, 신지평.

李錫暎(1994). 四柱捷徑 券2, 한국역학교육학원.

이석영외 3인 編(1982). 推命歌全集, 동양서적.

이정훈(2021. 12. 08.). 코로나로 불평등 가속...상위 10% 자산, 하위 50%의 190배, 한겨레, 8면.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2405.html

제임스 글릭 지음, 박배식, 성하운 옮김(1993). 카오스, 동문사.

제임스 글릭 지음, 박래선 옮김(2013). 카오스, 동아시아.

줄리언 바지니 지음, 서민아 옮김(2017). 자유의지, 스윙밴드.

하선영(2014. 07. 17.). 노력하면 된다? ... '1만 시간의 법칙' 틀렸다, 중앙일보, 종합12면.
<https://www.joongang.co.kr/article/15282870>

한나 크리스찬로우 지음, 김성훈 옮김(2003). 운명의 과학, 로크미디어.

洪裕嬋(2020). 中國 先秦時代의 運命觀에 관한 研究, 대구한의대학교 대구한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崔振默(2001). 漢代 數術學 研究,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프란츠 M 부케티츠 지음, 원석영 옮김(2009). 자유의지, 그 환상의 진화, 열음사.